

**MVRDV의 건축에 나타난 공간 구성 수법에 관한 연구

A Study on Spatial Characteristics of MVRDV's Architecture

조영배*/ Cho, Young-Bae

Abstract

MVRDV is most important architect as created interesting architectural space in contemporary architecture. and so they applies to the unique theory in their architecture. They used to architectural diagram, program, datascape, density as a design tool. Especially, they have create new architectural space and form in using architectural diagram, program, datascape, density, and void. So, this study is purposed to explain how they use as architectural tool to make composition of it's architectural space and is purpose to explain what is their main concept in architectural space. MVRDV's architectural space has fundamental methodology. That is Datascape on uncertainty and continuity between urban space and architectural space. The former consist in using diagram and architectural program. and the latter consist in operating architectural void and inner continuity surface. The conclusion is follows

1. The mode of spacial composition by architectural void is correspond density of city as MVRDV's architectural thinking.
2. The mode of spacial composition by architectural program is ambiguous to the boundary between inner and exterior space by transparency.
3. The mode of spacial composition by architectural diagram make to generate the architectural form and space, through the reinterpretation and relocation of architectural program.
4. The mode of spacial composition inner continuity plane is make relative between site and inner space

키워드 : 데이터스케이프, 내부공간화, 불확정성, 보이드, 프로그램, 다이어그램
Keywords : Datascape, Spacial interiorzation, Uncertainty, Program, Diagram

1. 서론

1.1. 연구의 목적 및 의의

본 연구는 공간을 구축하는 방법에 대한 관심에서 비롯되었으며, 특히 현대건축에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MVRDV 건축의 공간조작과 조직방식에 대한 특성을 파악하고자 하는 의도에서 시작되었다. 현대건축에서 현대 건축공간의 특징은 혼돈과 복잡성의 공간, 경계의 해소, 다차원적 공간과 신체성의 도입, 공간의 비 물질화, 영상화, 유연구조와 유동성의 공간, 가상공간과 현실공간의 겹침 등으로 나타나는데 이러한 현상을 가장 잘 이론적으로 드러내고 있는 건축가가 바로 MVRDV

이기 때문이다.

또한 최근 현대건축이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전환하면서 MVRDV의 건축은 근대건축과 포스트모더니즘 건축 비판에 대한 새로운 대안으로서 자리매김 되고 있으며 그들이 만드는 새로운 건축 공간의 창출에 주목하고 있다.

무엇보다도 현대건축 공간에서는 동일성에 의해 지배되던 근대건축의 공간과는 달리 차이가 강조되면서 유연성, 자의성, 가변성 같은 "새로운 이질성"이 나타나고 있다. 새롭게 등장한 현대건축의 공간은 다양한 전개 양상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과거의 양식을 극복하려 하고 있다. 그 중심에 바로 MVRDV가 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MVRDV 건축에서 나타나는 건축 공간 구성 수법에 대한 특성을 밝히고 객관화 시켜 새로운 건축을 위한 하나의 대안으로 삼고자 함에 그 목적이 있다.

* 정회원, 인하공업전문대학 실내건축과 부교수

** 본 논문은 2006년도 인하공업전문대학 교내연구비의 지원에 의해 이루어진 논문임

1.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본 연구는 MVRDV가 건축적 이론과 작품 등에서 본격적으로 인정을 받는 1990년대부터 2002년까지 작품을 위주로 분석을 한다. 이렇게 분석시기를 한정된 것은 현재에도 건축에 관한 새로운 논의가 진행 중이며, 그 속에서 작품 활동을 하는 건축가는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연구는 MVRDV의 저술인 FARMAX를 논의의 출발로 삼고, 데이터스케이프(Datascape)의 이론적 가설을 확립한 KM3를 참고하여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대상작품은 실현여부에 상관하지 않고 분석하였으며 비교적 공간구성의 특징이 잘 나타나 있는 작품을 분석대상으로 삼았다. 연구 방법은 2장에서는 MVRDV의 공간적 이론적 배경이 되는 데이터스케이프와 연속성이라는 개념을 살펴봄과 3장에서는 이를 바탕으로 구체적인 공간 구성 수법을 알아보고자 한다.

2. MVRDV의 건축공간 개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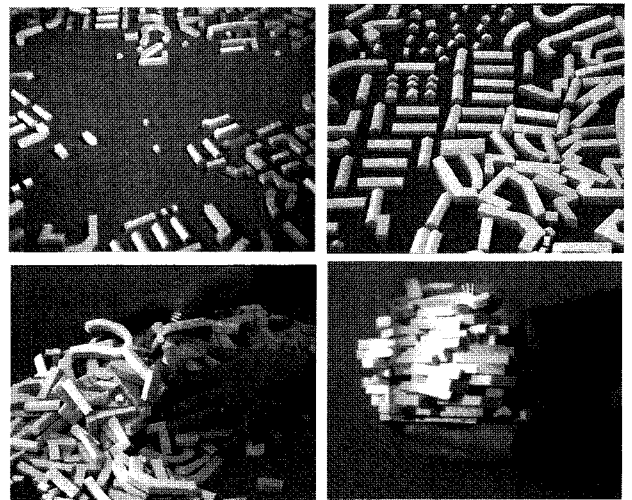
2.1. 불확정성과 데이터스케이프(Datascape)

시대 흐름의 변화를 수용하고 변화된 사회에서 건축에 사람들의 행위를 담는 것은 사회의 요구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사람들이 활동은 프로그램에 대한 새로운 해석을 필요로 하게 되었다. 현대 사회에 들어오면서 프로그램의 기능이 일정한 상황에 따라서 고정되어진 것이 아닌 불확정적인 특성을 갖게 되는데, 다양한 이벤트들과 프로그램을 동시에 담고 있어야 하는 다 기능적이고 복합적인 현상이 나타난다. 이렇게 복합적인 프로그램이 나타나게 되면서 프로그램들 간에 다양한 관계를 가지게 되는 것이 가능하게 되었으며, 이러한 관계는 예상치 않았던 이벤트가 만들어지는 효과를 만들어 낸다. 이렇게 나타난 이벤트적인 프로그램은 불확정성이라는 개념으로 나타나게 된다. 실제 MVRDV는 프로그램을 계획함에 있어서 모든 것을 확정짓지 않는 태도를 취하고 있다.¹⁾ 즉 기본적인 프로그램은 결정되어지고 그 나머지부분에서는 상황에 따라 다른 방식을 취하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MVRDV는 내부 연속 면이라는 공간조직방법을 사용하고 있으며 한편으로는 데이터 분석을 토대로 건축 공간 구성에 다양함을 주고 있다. 이러한 데이터 분석의 시도는 밀도(density)라는 개념에서 시작되는데, 실제 양적으로 팽창화 된 도시에서, 도시적 맥락을 밀도(density)라는 개념으로 풀어나가려는 것이 MVRDV 건축 방법론의 핵심이다. 이것이 바로 데이터로 구성된 랜드스케이프(Landscape), 즉 데이터스케이프²⁾이다.

데이터스케이프는 현실상황과 제약조건에 대한 자료들을 객관적, 논리적으로 시각화함으로써 프로젝트가 이상적 표현이 아닌, 현실상황과 제약조건에서 출발 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그리고 데이터스케이프는 한계의 표현이 아닌 한계를 밀어내기 위한 작업이다. MVRDV는 데이터스케이프에서 드러난 모든 한계를 극복하려하는 것이 아니고, 가장 제약이 되는 한 두가지 요소를 찾아내어 이것의 한계를 극복하는 것 MVRDV의 건축적 작업의 목표이다.

데이터스케이프를 통해 한계를 밀어내는데 필수적인 요소는 도표(Diagram)이다. 축적된 자료의 시각화 된 도표는 프로그램을 배열하고 디자인을 시작하는 스케치와 같은 기초자료로 사용된다.³⁾ 데이터스케이프는 건축가의 작업에 영향을 미치고 심지어 작업을 정의하고 통제하기도 하는 현상을 나타내기도 한다.



<그림 1> MVRDV, FARMAX

이를 실현하기 위해 MVRDV는 현대도시를 메타도시(metacity)로 파악하였다. 도시들이 네트워크로 연결되어 더 이상 단절된 것이 아닌, 연속적이고 거대한 완결체로 본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MVRDV는 이러한 메타도시의 거대함 때문에 그 특성을 파악하기 위한 숫자와 데이터를 통해서만 가능하다고 판단한다. 따라서 통계적 기술만이 메타도시의 변화상에 따라갈 수 있는 건축적 방법이라고 말하고 있다.⁴⁾ 이러한 데이터들은 MVRDV가 취하고 있는 극단적인 시나리오에 의해 탐구되고 있다. 즉 인간이 거주할 수 있는 영역은 수치를 통해 극단적으로 추론하여 개발의 한계 상황을 만드는 것이다. 이러한 시나리오를 만들어 내는 가정 속에서 MVRDV는 수치로 되어 있는 통계적 데이터를 다이어그램으로 전환한다. 이 다이어그램들은 이들이 세운 가정의 결과로서 메타시티 시대의 개발의 한계와 그로인한 밀도의 증가를 시각적으로 나타낸다.

1) Rem Koolhaas(1994), *Bibness, or the problem of Large, S.M.L.X.L.*, p.10
 “나는 불확정성(uncertainty)을 신뢰한다. 어떤것을 실제로 확신하기 위하여 당신은 거의 다른 모든 것을 심오하게 혐오하는 것이 필요하다...”

2) Veronique Patteuw 편집, 최학중 옮김, *MVRDV 건축읽기*, p.29

3) 윤혜영, *MVRDV 건축의 Datascape 공간조직방법 연구*, 서울대 석론, 2003, p.79

4) MVRDV, *MVRDV KM3*, berlage institute, 2005. p.101

MVRDV의 작업은 자본주의라는 힘에 의해 더욱 더 많은 추상적 이해관계들로 인해 생겨나는, 안토니기든스⁵⁾가 언급한 '추상적 시스템'의 성장을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있다. 이와 같이 혼돈의 시스템 속에서 건축의 돌파구를 찾아 나가는 점은 계획과 통계를 선호하는 경향을 보인 렘콜하스(Rem Koolhaas)와는 다른 경향의 접근방식인 것이다.⁶⁾

MVRDV의 건축적 접근 방식은 건축적 차원에서 새로운 '맥락'을 형성하고 각 프로젝트에 정체성을 부여하기 위한 것이다. 즉 그들에게 있어 맥락의 의미는 일반적인 기념비적, 혹은 건축적 형태가 아닌 사회적 삶의 정량화될 수 있는 면이 가시화된 것으로 데이터스케이프의 결과인 것이다.

결국 MVRDV의 데이터스케이프는 실용적인 차원에서의 커뮤니케이션의 수단임과 동시에 개념적 차원에서는 비가시적인 타자, 사회적 제약조건들을 가시화하여 맥락을 형성하는 수단인 것이다.⁷⁾

2.2. 도시공간과 건축공간의 연속성

현대도시에서 건축한다는 것은 한 설계자의 직관에 기대하기에는 너무나 많은 상호관련 변수가 존재한다는 현실을 직시한 MVRDV는, 현대건축의 복잡한 현실을 가장 논리적이고 객관적으로 걸러낼 수 있는 소프트웨어를 개발하였다.

MVRDV는 모더니즘적인 건축적 사고에서 벗어나 실험적인 건축을 시도하고 있다. 이러한 특성을 한마디로 말하면 '자유'이다. 그의 건축적 공간은 도시관과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으며, 이 가운데 도시와 가장 밀접한 것은 그 규모와 프로그램이라는 요소에 기인하는 건축의 본질적 특성이다. 따라서 MVRDV는 제한 요소들을 기반으로 도시와 건축, 건축과 공간과의 관계를 연속성이라는 개념을 사용해 단편화된 블록들을 매개하는 공간으로 형성한다. 이러한 연속성의 개념은 랜드스케이프라는 개념으로 발전해 대지의 확장성과 함께 건물 내부에 대지를 구축하는 개념의 압축된 형태로 나타난다.

MVRDV의 연속면은 내/외부 공간의 연결방법으로 자주 쓰여지는 경사면을 자연스럽게 내부공간으로 유도하고 있으며, 건물 내부에서도 의도적인 경사면의 사용을 통한 수직적인 단

절을 극복하고 있다. 이러한 연속 면은 건물의 맨 아래층에서부터 최상층까지 단절 없이 연속성을 획득하게 된다. 따라서 MVRDV의 공간구성은 내부공간과 외부공간의 경계를 없애으로써 도시 맥락과 연속성을 강조하게 된다.

현대사회는 건축이 내부와 외부의 경계선상에서 작용하는 방식을 모호하게 만들며, 공간에서 공적영역과 사적영역이 구별되지 않는 특성을 지닌다. 공적인 영역과 사적인 영역의 구분이 모호해지는 상황에서 MVRDV는 다음과 같은 건축공간에 의미를 두고 작업을 하고 있다.

첫째, 3차원의 공간을 디자인하고 3차원의 도시를 생성하는 일에 관여하고 있다. 이것은 거대도시의 내부화에 대한 심각한 비판에서 시작된다.

둘째, 도시의 응집을 통합적이고 상호의존적인 단위들로 간주하여 기능들을 혼합하고 차이들을 통합함으로써 밀도와 조밀함이 주를 이루는 환경 속에서 흥미로우면서 바람직한 작업을 하려한다. 그들은 이런 작업을 통해 특질과 개성을 수정할 수 있는 능력을 지닌 오브제를 디자인 하려 한다.

셋째, 비어있는 상자 형식과 속이 꽉 찬 입체들 속에서 공간적인 내부화를 통해 작업을 진행한다. 이것은 연속적인 내부공간을 제안하고 내부로부터 외부로 향해 디자인되도록 하였다. 투명성을 통해 내부와 외부의 모습에서 보이는 상호의존성과 점진적인 변이를 생성하고 공간적인 내부화(Spatial interiorization)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이런 공간들은 면적이나 비용을 가산시키지 않으면서 발생할 수 있는 영역 내에서 만들어 진다.

MVRDV에게 있어 내부화, 즉 빈 공간에 대한 관심은 자연관과도 밀접한 관련을 지닌다. 간적을 통해 자연환경을 극복해야 했던 네덜란드에서 자연은 더 이상 자연 그대로로서의 자연이 아니다. 자연은 천연의 환경이 아닌 인공을 가해 재생산된 랜드스케이프로서의 자연이다. 그런 전통 속에서 작업을 하는 MVRDV는 자연을 도시적인 행위로 간주한다. 자연은 생존을 위한 필수품과도 같은 것이다. 그들에게 자연은 가축과 식량 그리고 여가를 만들어 내기 위한 수단이다. 자연은 생존을 위해 개척되고 개발되어야 하는 것이다. 그들은 인공적인 자연과 자연적인 자연의 영역을 구별하지 않는다. 자연은 건축이 되고, 건축이 자연(Landscape)이 된다⁸⁾.

3. MVRDV의 건축공간 조작방식

3.1. 데이터스케이프(Datascape)에 의한 공간조작

(1) 다이어그램(Diagram)을 통한 공간조작

현대 건축에서 쓰여 지고 있는 다이어그램은 다양한 자료들의 압축이라고 할 수 있으며, 통계표나 그래프도 정보를 압축

5) 데이터스케이프는 안토니 기든스(Anthony Giddens)가 말하는 현대사회에서 전통적 권위를 대체시킨, '전문가 시스템'과 '추상적 시스템'의 시각화(Visualization)이다. 이것은 시스템내의 신뢰가 특수 분야에서 유추된 전문적 의견에 바탕을 두는 관료적 시스템이다. 특정 시스템에서의 관리자의 지위는 그와 다른 시스템에서의 지위에 대해서 아무것도 설명하지 못한다. 더구나 여러 시스템에서의 정보의 객관성은 논란의 여지가 있다. 특정 이익단체가 전문가를 고용하여 다른 이익단체의 정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법률과 규정은 해석에 달려 있다. 현대사회는 이러한 복수적 추상적 시스템에 의해서 좌우되고, 건축 환경 또한 이와 마찬가지로 이다. Veronique Patteuw, MVRDV 건축읽기, 최학중 옮김, 시공문화사, 2006, p.33

6) Hubert Adam, MVRDV 1991-2002, El Croquis III, 2002, p.17

7) Jean Attafi, Vertical Labyrinth, Reading MVRDV, 2002, p.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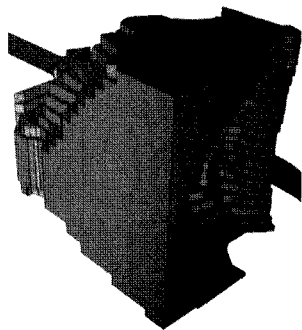
8) Hubert Adam, 전제서, p.14

하는 것으로서 일종의 다이어그램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다이어그램은 과거 양식을 벗어나 건축가들의 새로운 방법론으로서 자리잡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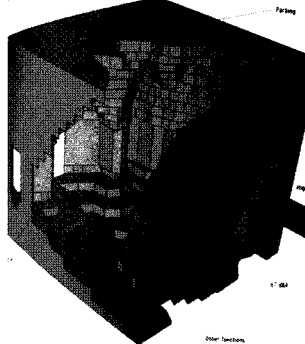
“다이어그램적 또는 추상적 기계는 현실적인 어떤 것일지라도 재현하기 위해 기능하지 않고, 오히려 아직 도래하지 않은 현실을 건설한다.”⁹⁾

이러한 현대건축의 작업에서 다이어그램은 기술과 통신의 발달로 거대해진 건축을 디자인 과정상의 의사소통에서 잠재적 질서를 제공하며 동시에 다양성을 가능하게 된다. 다양성으로 인해 합리적, 객관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도구로 쓰인다.

다시 말해 다이어그램은 건축의 디자인 과정에서 다양한 요소의 관계를 새롭게 재편성하여 시각적으로 나타내는 도구의 역할을 하고 있다. 이러한 과정은 건축자체의 문제만이 아니라 빠르게 변화되어지고 발전해 나가는 현대사회의 흐름에 따라 변화되어지고 구체화됨으로서, 이렇게 나타난 공간은 도시와 사회의 다양함을 포괄할 수 있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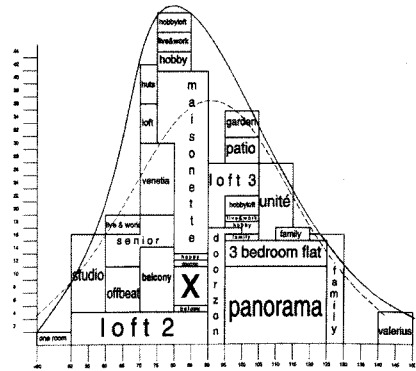
<그림 2> Noise scape Diagram2



<그림 3> Noise scape Diagram1

‘Noise scape’는 청각환경이라는 특수한 조건(고속도로 주변의 대지)하에서 프로그램을 만족시키는 프로그램이다. 따라서 MVRDV는 이러한 프로그램을 건축에 반영하는데 제약이 되는 소음을 새롭게 구성한다. 소음이라는 제약조건을 새롭게 구성함으로써 새로운 프로그램의 가능성을 나타내고 있다. 주거가 65dB, 사무실에 67dB의 기준을 적용한 소음의 등고선이 나타내는 등고선 형태의 볼륨은 마치 동굴과도 같은 형태를 만들어 내고 있다. 이러한 형태는 소음에 별 영향을 받지 않는 오피스나 위락시설과 같은 프로그램과 소음에 가장 영향을 많이 받으며, 공기나 빛과 같은 자연환경을 요구하는 주거의 배치를 소음의 구조와 높이에 따라 배분하고 있는 다이어그램이다. 이렇게 나타난 다이어그램으로 인해 고속도로 주변의 버려진 대지를 새롭게 바라보는 가능성이 생겨났다.

9) 들뢰즈와 가타리에 의하면 추상기계는 언어학자들이 생각하는 언어의 작용보다는 훨씬 더 추상적인데 그것은 추상적이라는 언어의 시스템이 표현의 형식과 언어의 전체가 되는 보편성에 매여 있는 이유로 충분히 추상적이지 못하기 때문이다., 질 들뢰즈, 들뢰즈의 푸코, 권영숙·조형근 역, 새길, 199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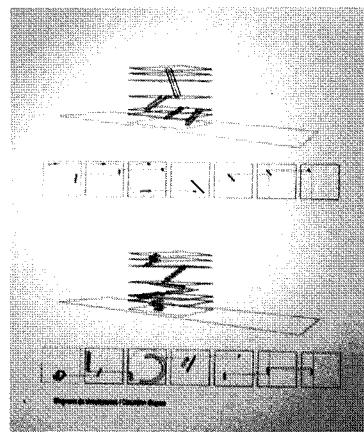
<그림 4> Silo Housing에 사용된 가우스곡선 다이어그램

또한 Silo Housing에서 사용한 가우스 곡선은 통계학에서 많이 쓰이는 정상 분포를 알아보기 위한 다이어그램이다. 그러나 MVRDV에게 있어 이 다이어그램은 건물을 구성하는 복합적인 프로그램이 균형적으로 배치되어 상호연관지어 질 수 있도록 고안 되어졌으며 상호 시너지 효과를 일으킬 수 있도록 고려 되어졌다. MVRDV의 이러한 다이어그램의 사용은 프로그램이 균형적으로 배치될 수 있게 유도해 내고 있으며, 경제적, 정치적으로 느슨한 공적 프로그램의 배분 원칙을 제공한다 는 점에 의의가 있다.

(2) Program의 조작을 통한 공간조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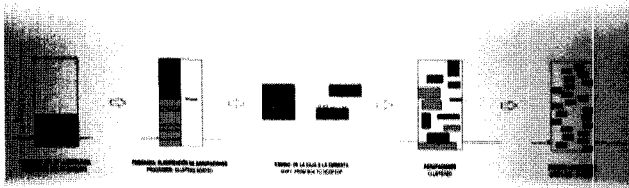
MVRDV의 건축은 프로그램의 최대화를 기본으로 프로젝트를 시작한다. 최대화된 프로그램은 공간 안에서 다양한 형태로 표현이 되고 있으며, 채워진 밀도 안에서 사회적 요구나 그 외의 조건들에 의해서 공간은 비워지게 된다.

즉 밀도를 최대화 시킨 다음 채워진 입체 안에서 내부적 외부, 즉 보이드 영역을 만들어 내외부의 관계를 모호하게 만들게 된다. 그 공간들은 프로그램에 대한 지적인 조작을 통해서 면적이 나 비용을 특별히 가산시키지 않으면서도 생성될 수 있는 영역이다. MVRDV에게 있어 프로그램은 건축에서의 단순한 역할이 아니라 도시와 사회를 연결해 줄 수 있는 매개체로서의 역할을 한다. 이렇게 MVRDV에게 있어 건축 프로그램은 건축에서 도시로 연속적으로 확장하는 복합적인 개념을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다.



<그림 5> Dutch Pavilion for the Expo 2000, 프로그램이 적층, 내부공간 다이어그램

Dutch Pavilion for the Expo 2000 프로젝트에서 사람이 이용하는 면적을 수직적으로 확장함으로써 더욱 많은 여분의 공간을 발견하게 해 주었으며, 이것은 지역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 전 세계가 공통적으로 고민하는 문제에서 출발하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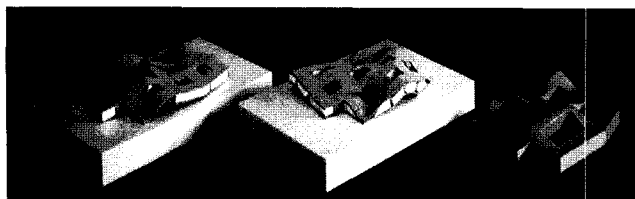
<그림 6> Media Galaxy, 전체 틀 안에서 프로그램의 재배치 과정 다이어그램

이러한 방식은 Media Galaxy에서도 같은 방식으로 사용되어지고 있다. 갤러리 빌딩도 최초 프로젝트 시작은 직사각형 매스 안에 프로그램이 채워지고 채워진 프로그램들은 제약 조건들에 의해서 전체 틀 안에서 새롭게 배치되어 진다. 배치되어진 프로그램 이외의 나머지 공간들은 확장될 가능성에 의해 비워지게 된다. 외부에서 비워질 거라 예상되는 부분과 내부공간에서의 비워지는 부분이 다르다. 내부의 프로그램 덩어리들은 외부에서 볼 때 투명한 표피로 처리되고, 내부의 비워진 공간들은 외부에서 볼 때 막힌 입면으로 표현한다. 입면에서 꽉 채워진 것처럼 보였던 닫힌 면은 내부에서 거대한 공간을 만들어 낸다.

3.2. 연속성에 의한 공간조직

(1) 공간삭제(Void)에 의한 공간조직

데이터스케이프에서 내부공간은 보이드(Void)의 개념과 관계가 있다. 데이터스케이프는 밀도, 즉 최대화를 기본으로 하는 개념이다. 따라서 내부를 프로그램으로 채워 넣는 것이 최대화의 개념과 모순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이런 방식으로 공간 내부를 프로그램으로 채워 넣는다면 더 이상 르코르뷔제(Le Corbusier)의 라로쉬 주택이나 사보아 주택에서처럼 연속적이면서 풍부한 공간감을 없을 것이다. 따라서 MVRDV는 적층된 프로그램 일부를 삭제하여 보이드를 만들어 내는 공간 구축방식이 나타난다.



<그림 7> Flying Village 스터디 모델, 매스 변화과정

특히 Flying Village에서 보이는 조직방식은 적층 후 삭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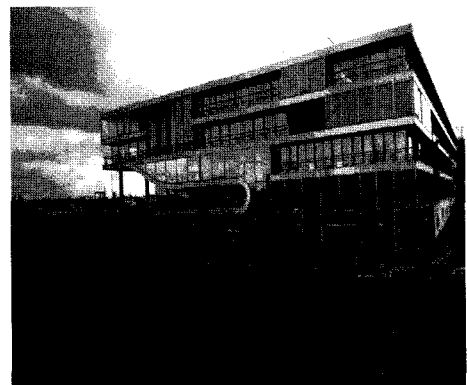
방식이 아니라 주어진 경계 내에서 최대한의 밀도를 가지고서 마당과 뒷마당으로 구성되는 주거를 만들어낸 독특한 형식을 취하고 있으며, 이렇게 얻어진 외관에 일련의 보이드가 형성되게 된다. 비워진 공간을 따라 복도와 주거가 구성되며, 들어 올려진 지붕은 반공공적인 성격의 복도와 사이 길, 계단, 단차이, 경사면들로 이루어지며, 대지의 언덕은 올려진 지붕과 연계되어 건물을 통과하는 지형의 연속성이 가능케 된다.

이렇게 보이드 되어 지고 연속되어진 지형으로 인해 공간은 사적, 공적 영역의 경계를 모호하게 만들고 있으며, 이렇게 나타난 공간은 내부적 공간화를 나타낸다고 할 수 있다.



<그림 8> 다이어그램을 이용한 Villa VPRO section 이미지

또한 Villa VPRO에서는 수평판 들의 적층 후에 보이드 공간(void)를 삽입하는 방식을 보이고 있다. 보이드 공간의 삽입으로 공간의 시점은 고정되지 않고 계속 변화되어지고 중첩된 면들 사이 공간으로 인해 공간의 내부화를 가져오고 있다. 이러한 공간 구축 방식은 프로그램으로 채워진 수평판 들이 최적화되어져 정방형의 건물을 채운 뒤 공간의 채광과 조망을 최대화하기 위해 내부에 작은 보이드의 공간들로 형성되어 다양성을 획득하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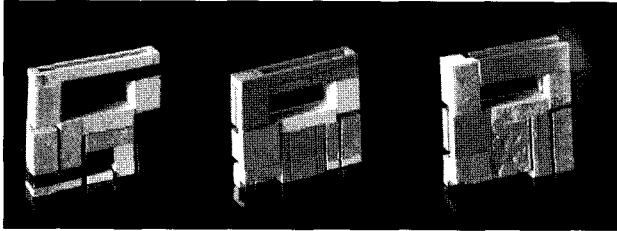
<그림 9> 대지와 공간 내부의 연속성을 보여주는 Villa VPRO

따라서 결국은 수평판 적층 후에 공간삭제라는 방식을 통해 원하는 공간적 특질을 만족시키고 있다.

Housing in Sanchinarro에서 보여준 MVRDV의 건축은 현대의 다양성과 개인화를 한 건물 내에 담아 표현하고자 하는 의도로 작은 그룹들은 적층하는 방식으로 구성된 아파트이다.

적층되어진 건물의 한가운데를 비워둠으로써 이 공간은 거주자의 공간이 아닌 지역 전체의 경관을 고려한 공공 공간이 되며 보이드 공간은 이곳에 거주하는 거주자들에게 미로 조직

의 통로 공간과 연계된 커뮤니티 공간으로 활용되어진다. 이러한 보이드 공간은 각 층의 엘리베이터와 직접 연결되며, 외부 계단의 조직과도 연계되어 도시가로의 성격을 외부화하고 있다. 전체 공간과 주변지역의 경관을 고려한다는 점에서 다른 보이드 공간들과는 다른 차별성을 갖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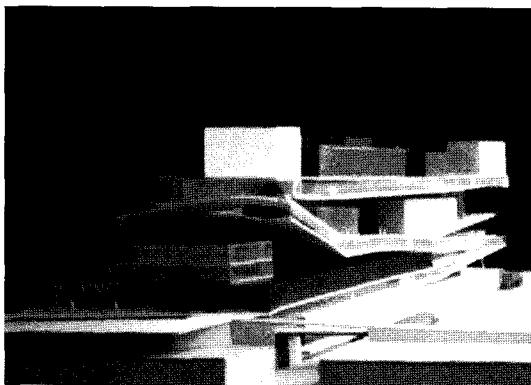
<그림 10> Housing in Sanchinarro 스테디모델, 공간삭제방식

이렇게 나타난 MVRDV의 보이드 공간에 의해 조직되어진 공간은 풍부함과 다양함을 낳고 있으며, MVRDV는 이렇게 형성된 공간을 공간 안에서 경계를 두지 않고 영역을 모호하게 하거나 비워둠으로써 상호 의존성과 변화가 가능한 공간을 만들어 나가고 있다.

(2) 내부연속면에 의한 공간조작

MVRDV에게 있어 연속 면은 도시와 공간이 하나의 연속된 공간, 즉 연속적으로 내부화된 공간이다. 이런 공간은 내부와 외부가 뚜렷하게 구별되지 않은 채 소통되고 커뮤니케이션 되는 공간이며 대지와 건축이 상호 연속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Villa VPRO 에서 공간의 차별화라는 명제 앞에서 MVRDV는 해결점을 내부 연속 면으로 찾았다. 각 층의 바닥판들은 램프, 작은 언덕, 계단 형 바닥 등으로 연결된다. 이렇게 만들어진 연속적인 내부는 옥상 정원까지 확장된다. 결국, 내부의 연속성을 갖는 건물은 도시의 연장선상에서 도시에서 옥상정원까지 연속된 경로를 가짐으로써 도시와의 연속성을 갖는다.



<그림 11> Leidschenteen town center, 연속된 바닥판위에 프로그램 배치

Leidschenteen town center에서는 내부공간과의 연속성과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지면을 접어 올린 듯한 바닥면의 구성을 취하고 있다. 또한 이러한 바닥 연속 면 사이사이에 프로그램

들이 배치되어 있어 접근성을 극대화 시키고 있다. MVRDV는 이렇게 만들어진 연속성 안에서 각 부분의 차이를 만들어 낸다. 차이를 만들어 내는 요소들은 프로그램이 올라가는 바닥판의 크기와 바닥판 사이의 높이 차이이다. 내부 프로그램들의 크기에 의해 바닥판의 크기가 결정된다. 건물의 단면은 도시의 단면을 나타내고 있고 평면은 프로그램의 크기에 의해 배치된 도시의 평면과도 같이 표현되어졌다.

Brabant Library는 내부에 들어갈 프로그램을 선형적으로 배치한 뒤 프로그램을 내재한 띠(바닥판)을 연속적으로 연결하여 형태를 형성한다. 벽면을 공공의 장소들 주변에서 순환시킴으로써 집합적이면서 공적인 라운지들이 형성되어 지고, 전체의 책들과 책의 운반, 연구과정과 같은 모든 것들이 도시의 풍경과 같이 일종의 거실과 같은 공간이 된다.

그것은 지식을 장소와 연구, 여가를 하나로 묶어주는 동시에 도시가 정보의 형태로 시설에 내재되는 경우이다. 이러한 정보의 흐름은 사람들의 흐름과 교통의 흐름, 프로그램을 내재한 띠를 연속적으로 감아올려 형성하며, 이는 도시로부터 연속적으로 모든 흐름을 받아들일 수 있는 장치가 된다.



<그림 12> Brabant Library, 내부에 연속된 바닥판

3.3. 소결

이상과 같이 살펴본 MVRDV의 건축 공간 구성방식을 정리해 보면 MVRDV의 공간 구성 방식은 네덜란드의 밀도를 해결하려는 것로부터 출발하였으며 도시를 하나의 거대한 연속체로 파악하고 도시와 건축 프로그램간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대안으로서 연속적인 공간을 대입하였다. 이러한 공간은 네트워크를 갖춘 하나의 장으로서 역할을 하게 되며 이렇게 형성된 연속적인 장안에서 다양한 공간적 경험을 맛보게 해 준다. 이러한 공간 구성을 이루기 위한 특징적인 수법을 살펴보면 보이드, 다이어그램, 그리고 프로그램과 연속면의 조작들을 통한 공간구성이 이루어짐을 알 수 있다.

MVRDV의 공간 구성 방식은 과거 모더니즘 건축에서와 같이 자유로운 평면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이를 극복해 공간의 내부화를 보여줌으로써 불확정적인 공간과 함께 공간 구성의

새로운 방법론으로 발전시켜 나가고 있다. 이와 같은 내용을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 1> MVRDV의 건축공간 구성 수법

MVRDV의 건축 개념	공간개념	공간의 의미	공간구성수법
불확정성과 Datascape	Diagram을 통한 공간조직	• 다이어그램을 통한 통합적 공간 창출	• 시각적 다이어그램의 사용을 통한 제약요소의 해결
	프로그램의 조직을 통한 공간조직	• 혼성적, 유동적, 복합적 공간 창출	• 떠있는 볼륨 • 프로그램의 분리
도시공간과 건축공간의 연속성	공간삭제(Void)에 의한 공간조직	• 공간의 다양성 창출	• 수평면 적층후 삭제방식 • 비위두기 방식
	내부 연속면에 의한 공간조직	• 카오스 이론과 혼잡이론, 위계가 없는 패턴의 질서, 비선형공간	• 바닥, 벽, 천장면의 일체화를 통한 하나의 면 구성

4. 결론

MVRDV에 있어 건축의 출발점은 도시에서 비롯되었으며, 도시의 제약조건들을 새롭게 해석함으로써 도시와 건축은 상호 작용하며 연속적이고 통합적인 공간 구축에 그 목적이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MVRDV 건축의 공간조직은 리서치를 기반으로 만들어진 프로그램과 외부와 내부를 연결하는 시스템이다. 데이터스케이프를 통해 얻어진 자료를 바탕으로 프로그램을 객관적이고 새롭게 재 해석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제약조건들을 다루면서 여러 효과가 나타나는 과정을 보여줌으로써 공간은 다양하게 조직, 형성된다. 주변의 여러 제약 요소들에 의해 나타난 불확정적인 요소들에 의해 도시의 공공영역이 모호해지는 현상을 건물 내부에 보이드 공간을 만들어 줌으로서 외부를 내부에 끌어 들이는 효과를 가져온다. 또한 이로 인해 건축이 도시와의 연속적인 선상에 놓이게 된다.

MVRDV의 공간구성 방법은 리서치를 통해 나타난 데이터를 이용하여 체계적으로 정리되어진 공간 속으로 연결되는 동선이나 유기적인 형태로 보이드 공간을 삽입하는 방법을 택해 기존 질서체계에서는 얻을 수 없는 새로운 공간적 실험을 하나의 새로운 건축방법론으로 모색하고 있다. 따라서 이를 정리하면 본 논문의 결론은 다음과 같다.

1. 보이드에 의한 공간 구성 방식은 적층되어진 프로그램을 삭제하여 보이드 공간을 만들어 주는 방법으로서 MVRDV가 말하는 도시의 밀도에 대응하여 나타난 개념이다.
2. 프로그램에 의한 공간 구성 방식은 건축 프로그램을 공간 안에서 내부화작업을 통해 연속적인 공간을 연출하고 있으며 투명성을 통해 내외부의 경계를 모호하게 만들어가고 있다.
3. 다이어그램에 의한 공간구성 방식은 주어진 프로그램에 대한 재해석과 프로그램의 재배치를 통해 건물의 공간과 형태를 생성하며, 여기서 말하는 다이어그램은 지도, 통계표, 도표

등이 건축에 있어 다양한 공간과 형태로 나타난다.

4. 내부 연속 면에 의한 공간구성 방식은 도시와 공간이 하나로 연속되어진 공간을 말하며, 이러한 연속된 공간으로 인해 내외부의 구분이 모호해 진 채 상호 커뮤니케이션이 일어나는 공간이며, 이것은 대지와 내부공간이 상호 연속적인 관계성을 맺는 다고 할 수 있다.

참고문헌

1. 김동관, 램쿨라스와 MVRDV 건축에 나타나는 공간조직 방법 연구, 국민대 석론, 2006
2. 한선정, 해체주의 이후 아방가르드 건축과 특성과 성격규명에 관한 연구, 서울대 석론, 1999
3. 홍경모, 램쿨라스 건축의 내부공간에서 드러나는 질서적 특징에 관한 연구, 서울대 석론, 1998
4. 노은주, 현대건축에 있어 공간의 연속성과 불연속성에 관한 연구, 홍대 석론, 2003
5. 김선희, 랜드스크레이퍼 공간의 표현특성에 관한 연구, 홍대석론, 2006
6. 김세영, 현대 공간 디자인의 다이어그램에 관한 연구, 국민대 석론, 2006
7. 윤혜영, MVRDV 건축의 Datascape 공간조직방법 연구, 서울대 석론, 2003
8. MVRDV, MVRDV KM3, berlage institute, 2005
9. FARMAX, Excursions on Density MVRDV, 010 publishers, Rotterdam, Third Edition, 2006
10. MVRDV, MVRDV 1991 2002, EL croquis, 2003
11. Veronique Patteuw, MVRDV 건축읽기, 최학중 옮김, 시공문화사, 2006
12. 질 들뢰즈, 들뢰즈의 푸코, 권영숙·조형근 역, 새길, 1995

<접수 : 2007. 12. 31>